

# 傷寒 陽明病에 對한 四象醫學的 考察

洪 性 範 · 韓 相 桓

## I. 緒 論

東洋醫學은 極히 多源의이나 內容을 大局의으로 區分한다면 內經과 本草經等이 統合해서 이루어진 五行說을 中心으로한 臟腑經絡說의 醫學과 傷寒論을 中心으로한 陰陽說의 證治醫學이라고 할 수가 있다.<sup>1)</sup>

傷寒論은 後漢때 張仲景이 著述한 것으로 人體의 病을 三陰 三陽의 六經病證으로 大別하고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의 症候를 細別하였으며 汗·吐·下·和·溫의 基本療法을 세워 千態萬象의 病理機轉을 方證相對로 學과術을 樹立함으로써 一切 漢方病理의 基本思想이 되어 있다.<sup>2)</sup>

『六經』이란 말은 일찍이 『內經』의 『熱論』에서는 經絡을 指稱하였으나 仲景은 이것을 擴大解釋하여 단지 經絡만이 아니고 臟腑經絡機能活動의 產物이며, 또 臟腑經絡의 物質的 基礎인 內在하는 氣·血·營·衛·津液을 包括한 것이라고 보았고 『六經病證』이란 人體가 病理狀態下에 있는 病理生理의 概念으로 보아<sup>3)</sup> 陽證은 太陽·少陽·陽明이라 分類하고 陰證은 太陰·少陰 厥陰으로 分類하여 六經辨證論治의 基礎가 되었다.

그러나 傷寒論의 桂枝湯證에서 四逆湯證(或은 竹葉石古湯證)에 이르는 證의 變化는 어느 一個人의 傷寒病에서 볼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한데 比해서<sup>1)</sup> 李<sup>4)</sup>는 “張仲景所論 太陽病 少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以病證名目而論之也 余所論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以人物名目而論之也”라 하고, 傷寒論의 三陰病證은 모두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少陽病證은 少陽人에게 있는 病證이며 太陽病證·陽明病證은 少陽人·太陰人·少陰人에게 고루 있으나 그 中에 少陰人에게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하여 傷寒論의 病證은 모두 可變證인데 對해서 四象人의 證은 不變證을 가지고 있음을 強調하였다.<sup>4.5.6.7.8)</sup>

이에 著者는 東醫壽世保元中에 收錄되어 있는 張仲景의 六經病論에서 特히 少陰人 陽明病에 對하여 治療大綱을 拔萃 研究한 것이다.

## II. 本 論

### 1. 陽明病의 病因

張仲景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曰 緣何得陽明病, 答曰 太陽病 若發汗 若下 若利小便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 內實 大便難者 此名陽明也.<sup>9.10.11.12.13)</sup>

- 1) 傷寒轉屬陽明者 其人晡熱微汗出也.
- 2) 本太陽病 初得病時 發其汗 汗先出不徹 因轉屬陽明也.
- 3) 傷寒發熱無汗 嘔不能食 而反汗出 濇濇然者 是轉屬陽明也.
- 4) 傷寒脈浮而緩 手足自溫者 是爲繫在太陰 太陰者身當發黃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 至七八日 大便鞭者 爲陽明病也.

### 2. 陽明病 三種

張仲景曰 陽明病 有三病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正陽陽明者 胃家實是也 少陽陽明者 發汗利小便 胃中燥煩實 大便難 是也.<sup>9.10.11.12.13)</sup>

### 3. 陽明三證의 治法

1) 陽明病 脈遲 雖汗出 不惡寒者 其身必重 氣短腹滿而喘 有潮熱者 此外欲解 可攻裏也 手足濇然汗出者 此大便已鞭也 大承氣湯主之 若汗多 微發熱 惡寒者 外未解也 其熱不潮 未可與承氣湯 若腹大滿不通者 可與小承氣湯 微和胃氣 勿令大泄下。<sup>9.10.11.12.13.14)</sup>

2) 陽明病潮熱 大便微鞭者 可與大承氣湯 不鞭者 不與之 若不大便六七日 恐有燥屎 欲知之法 少與小承氣湯 湯入腹中 轉矢氣者 此有燥屎 乃可攻之 要不轉 矢氣者 此但初頭鞭後必澹 不可攻之 攻之必腹滿 不能食也 欲飲水者 與水則噎 其後 發熱者 必大便復鞭而少也 以小承氣湯和之 不轉轉矢氣者 慎不可攻也。<sup>9.10.11.12.13.14)</sup>

3) 陽明病 不吐不下 心煩者 可與調胃承氣湯。<sup>9.10.11.12.13.14)</sup>

#### 4. 四象醫學의 批判

1) 張仲景所論太陽病 少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以病證名目而論之也 余所論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以人物名目而論之也。

2)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也 少陽人病證 即少陽人病證也 太陽病陽明病證則 少陽人少陰人太陰人病證 均有之而少陰人病證 居多也。

3) 論曰 張仲景所論 陽明三病 一曰脾約者 自汗出小便利之證也 二曰胃家實者 不更衣大便難之證也 三曰發汗利小便 胃中燥煩實者 此亦胃家實也 其實 非三病也 二病而已 仲景意脾約云者 津液漸竭 脾之潤氣漸約之謂也 胃家實云者 津液已渴 胃之全局燥實之謂也。

4) 胃家實 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歧 元不相合 太陽病表證 因在而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胃家實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潮熱狂言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發熱惡寒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5) 陽證 自汗不出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鬱狂證也 自汗出而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亡陽證也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亡陽病有險證危證也。

6) 亡陽病證 非但觀於汗也 必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 清利而自汗出則脾約病也 此 險證也 小便 赤澀而自汗出則 陽明病發熱汗多也 此 危證也。

7) 胃家實病 其始焉汗不出 不惡寒 但惡熱 而其病垂危則 濇然微汗出潮熱也 濇然微汗出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身熱汗自出不惡寒而若其病 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漳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8) 太陽病汗出 熱氣略寒氣之汗出也 陽明病汗出 寒氣犯熱氣之汗出也。<sup>4.5.6.7.8)</sup>

### III. 考 察

張<sup>9)</sup>의 『傷寒論』은 東洋醫學 臨床體系中에 重要的 基本的 書籍으로 歷史的 變遷을 거쳐, 宋代에 이르러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二書로 나누어 졌다. 『傷寒論』의 基本的 形態는 分明히 『六經』을 基礎로 해서 論하고 있으며, 이는 『素問·熱論』의 『六經』을 原形으로 해서 發展시킨 것으로, 仲景은 거기에 새로운 內容을 賦與하여 보다 豊富하고, 보다 完全한 것으로 發展시켜 臨床實踐에 活用한 것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sup>3)</sup>

六經病이란 『傷寒論』에 의한 分類方法으로 太陽病·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을 말한다. 이것은 外感性 疾病의 進行하는 過程에 따라 疾病의 形態를 六種으로 區分한 것으로 疾病이 처음 發生될 때에는 人體의 正氣가 衰弱하지 않기 때문에 病證은 陽性反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時期를 太陽·陽明·少陽의 三陽期로 區分한다. 따라서 三陽病은 熱證·實證을 나타내게 된

다. 그러나 疾病이 어느 程度 進行하면, 人體의 正氣도 漸次 衰弱해져서 病狀의 反映도 沈衰해지는데, 이때가 卽 三陰證의 時期이다. 따라서 三陰證은 대부분 寒證·虛證에 속한다. 外感病의 邪는 表에서 裏로 漸次 移行하여 가기 때문에 太陽病은 外感病의 初期 症候이며 表證이고, 邪가 表에서 裏로 들어가면 陽明病이 되고, 邪가 半表半裏에 머무르면 少陽病이 된다.<sup>15)</sup>

陽明病은 太陽病이 있을 때에 汗·吐·下의 法을 써서 胃中津液이 乾燥하여 轉屬陽明이 된 것으로 外感病의 過程 가운데 邪氣가 가장 盛하고, 同時에 正氣의 抵抗力도 가장 強한 時期이다. 陽明病의 病位는 裏에 있고, 實熱證에 屬하는데 臨床症狀에서 經證과 腑證으로 大別된다.<sup>16)</sup>

陽明經證은 無形의 熱邪가 上中二焦에 이漫되어 發하는 것이며, 白虎湯이나 人蓼白虎湯으로 清熱하는데 急性熱性病에 잘 應用된다. 熱이 甚하면 必然的으로 津液을 損耗하여 氣를 傷하게 되므로 仲景은 白虎湯의 單用보다 白虎加人蓼湯을 더 多用했다.

陽明腑證은 熱邪와 燥屎가 相合되어 裏에 搏結된 것으로 이 境遇의 清熱法 使用은 熱湯을 식히려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釜底의 薪을 除去하여 根本的인 解決法을 써야 한다. 三承氣湯이나 後世의 三承氣湯, 增液承氣湯, 黃龍湯은 모두 急性熱病의 裏熱實證을 治療하는 方劑이다. 雜證에서는 急性盲腸炎이나 腸梗阻等の 急性腹證에 應用하는 境遇가 많으며, 이들 方劑의 服用으로 熱結을 峻下하고 梗阻을 解除할 수 있다.<sup>3)</sup>

傷寒에 卍하고 瀉한 뒤에 病이 풀리지 않고 大便이 五·六日 乃至 十餘日 不通되면 日晡發潮熱하고 헛소리를 하며, 甚하면 意識을 잃고 循衣摸床하며 惕而不安하고 微喘直視한다. 이와 같은 危境에 이르렀을 때에 仲景은 大黃大承氣湯을 써서 便通을 하면 神效하다 하였는데 그러나 脈이 弦한 자는 살코

脈이 弦한 者는 죽는다고 하여<sup>4,9,10)</sup> 確實히 陽明病胃家實 治療에 自身이 없음을 端的으로 말하였고 또 傷寒病 治療에 있어 瘡家·衄家·汗家·亡血家(失血性 患者)·胃中冷의 境遇에는 發汗을 해서는 않된 다고 하였으니, 卽 이는 陽虛·血虛·陰虛·中陽不足의 體質을 十分 考慮한 것이다.

李<sup>4)</sup>는 民族固有의 醫學인 四象醫學을 創案하였으니, 人間은 本質的으로 타고난 體質이 다르며 이는 臟腑의 大小虛實에 의해 決定된 것이요, 각 體質에는 容貌·詞氣·性格·心理狀態가 確然히 다르다는 原理에서 成立된 것이다.

李<sup>4)</sup>는 그의 著書 東醫壽世保元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靈樞經에 『太少陰陽五行人論 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 而未盡精究也』라 하여, 이와 같이 抽象的이요 觀念的인 思考에서 脫皮하여 사람의 臟腑性理에는 根本的으로 大小虛實이 固定되어 있고, 이로써 生理·病理·心理·藥理가 다르다는 具體的이요 合理的인 觀察을 함으로 오늘날 韓醫學의 새로운 學流가 생긴 것이다.<sup>17)</sup>

위에서 말한 六經病에 대하여 李<sup>4)</sup>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三陰病은 모두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少陽病은 少陽人에게 있는 病證이며, 太陽病·陽明病은 少陽人·太陰人·少陰人에게 고루 있으나 이 中에 少陰人에게 가장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體質에 따라 새로운 病理觀을 樹立하였으므로 비록 外感內傷이라 해도 治療에 있어 確實히 다른 次元에서 成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17)</sup>

少陰人의 外感은 우선 脾胃腸이 虛弱하여, 邪氣가 侵入하면 腎의 陽氣가 不能上昇하므로 鬱縮膀胱하여 惡寒發熱하고 頭痛·身體痛이 있다. 이는 寒邪와 正氣가 相爭하는 形勢니 이를 東武公은 腎受熱表熱病이라 規定하였다.<sup>17)</sup>

少陰人은 脾胃中焦의 陽氣와 이를 뒷받침

하는 腎·命門의 陽氣가 不足하여 上焦衛陽으로 升陽하지 못하므로 外邪가 侵入하면 腠理를 開闔調節하는데 得中하지 못하여 緊束力을 상실하고 汗液이 外脫하면 이를 따라 不足한 陽氣가 더욱 脫하게 된다. 그러나 이 중에도 陽氣의 升陽作用이 비교적 健實하면 緊束力이 尙存하여 無汗하게 된다. 有汗·無汗을 莫論하고 少陰人의 外感表病은 表氣陰陽의 不和이므로 이를 調和하는 것이 治法의 大綱이 된다. 그러므로 無汗은 陽氣尙存한데 榮衛陰陽만이 不和한 所致이니 但, 調榮衛하며, 有汗은 陽氣不足으로 인한 津液外脫이므로 治本하기 위해 氣血을 助長하고 陽氣를 補助하여 達表토록 升陽益氣法을 구사하게 된다. 이는 勿論 그 程度에 따라 施行하며 初期는 다만 그 氣를 助하고, 甚해지면 그 陽과 氣를 兼升시켜 준다. 18) 傷寒治療에 汗·吐·下 三法을 설정해 놓은 것은 少陰人治療에는 絶對 禁物이다.<sup>17)</sup>

陽明病은 『陽明之爲病 胃家實 是也』라고 하였으니 陽明은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을 指稱한 것으로 胃와 腸의 病, 곧 消化器 系統의 病을 말하며 대체로 熱性便閉의 뜻을 內包하고 있다.

李<sup>4)</sup>는 張仲景이 論한바 陽明病의 세가지 症勢中에 첫째로 脾約이라 함은 嘔이 저절로 나고 小便이 많아짐이요, 둘째로 胃家實이라 함은 大便을 보고 싶어도 굳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요, 셋째로 發汗·利小便하여 胃中이 燥煩實한 것은 이도 또한 胃家實한 것이니 세가지 證勢가 아니라 두가지 病證일 따름이다라고 말하였다. 仲景이 脾約 云云한 것은 津液이 漸次 枯渴하여 脾의 潤氣가 말라 가는 것을 말함이요, 胃家實 云云한 것은 津液이 이미 枯渴되어 胃의 全局이 燥實되어 있는 狀態를 뜻한 것이다.<sup>5,6,7,8)</sup>

陽明病은 주로 少陰人 體質에 있는 病證이다. 感氣·몸살·流行性 感冒를 莫論하고 熱性病에 發汗劑를 써서 嘔를 많이 내고, 혹

利尿劑를 쓰거나, 下利劑를 써서 몸의 津液이 枯渴되면 大便不通證이 생기니 이른바 陽明證이라 하였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自汗하며, 小便量이 많으니 이는 脾의 潤氣가 없어지는 證據이다. 이를 傷寒論에서는 脾約이라 하여 胃腸津液이 枯渴되어 장차 胃家實證으로 轉變될 徵兆라 하였는데 이는 元氣가 低下되어 抵抗力이 없어지는 證據이다.<sup>17)</sup>

太陽病 表證에 其人이 如狂者는 鬱狂之 初證이요, 陽明病 胃家實에 大便이 不通하면 鬱狂之 中證이요, 陽明病에 潮熱이 있고 狂言하며 微喘直視者는 鬱狂之 末證이라고 하였고, 또 太陽病에 惡寒 發熱 汗自出者는 亡陽之 初證이요,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는 亡陽之 中證이요, 陽明病 汗多者는 亡陽證의 末證이라고 하였다. 대개 鬱狂證은 身熱은 있으나 嘔이 없고, 亡陽證은 身熱이 있으면서 嘔이 나는 것이 다르다. 또 無汗하고 頭痛身熱이 있으면 太陽陽明 鬱狂證이요, 自汗하고 頭痛이 있고 身熱이 있으면 太陽陽明 亡陽證이다. 鬱狂證에도 輕重이 있지만 亡陽證은 險證이요 危證이다.

亡陽證에는 비단 發汗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小便이 적고 많은 것도 보아야 하니, 만일 小便量이 많고 맑으며 自汗이 있으면 脾約이니 險證이요, 小便이 붉고 탁하며 嘔이 있으면 陽明病에 發熱 多汗證이니 危證인 것이다. 본래 胃家實證은 처음에는 無汗하고 惡寒證이 없이 단지 發熱만 있다가 危境에 이르르면 澀然微汗出하고 潮熱이 생긴다. 이는 表寒證에 振發力이 枯渴된 狀態다. 脾約證은 처음에는 身熱 自汗出하되 惡寒은 없다가 危境에 이르러 熱이 甚하고 嘔이 많으며 惡寒이 생긴다. 이는 裏熱을 이기지 못하여 脾氣가 끊어지는 症候이다.<sup>4,5,6,7,8)</sup>

胃家實 脾約 등의 傷寒論의 概念은 모두 津液內渴 또는 津液內結로 인해 腸胃가 化燥 化熱하여 大便이 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先天的으로 腎·大腸과 脾胃의 陽氣

가 不足하여 津液을 化生하지 못하고 脾氣를 補助하지 못함으로 運化不得하고 점점 胃強 脾弱해져서 發生한 경우라면 다만 困窮한 陽氣를 上昇시키고 氣血을 補益하는 方法을 用일이다. 이러한 陰陽的 偏差에 대한 考慮없이 生津養陰하는 方法을 用하면 津液은 더욱 內結하고 陽氣는 더욱 衰微해지게 된다.<sup>18)</sup>

陽明病은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므로 承氣湯으로 瀉下해서는 안되고, 通便을 目的으로 한다면 반드시 巴豆를 써야 하며, 약간의 嘔이 있어도 黃芪桂枝湯을 쓰고 氣運이 脫盡 狀態에 있으면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으로 氣運을 扶助해야 한다. 陽明證 末期가 되어 全體에 嘔이 끈끈하게 나고 一週日 乃至 十餘日을 大便不通이 되며, 日晡發潮熱하고 煩熱이 있으며 謔語를 하고 精神錯亂 證勢가 보이면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獨蔘八物湯 등을 쓴다. 汗多亡陽證에는 반드시 人蔘 附子를 써야 한다.

#### IV. 結 論

東醫壽世保元中에 收錄되어 있는 六經病論에서 特히 少陰人 陽明病에 對하여 治療大綱을 拔萃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이나 雜病을 莫論하고 우선 體質을 判別해야 한다.
2. 六經病의 進行過程을 重視하지 않고 體質적으로 나타나는 特有的 病證을 把握해야 한다.
3. 陽明病은 四象醫學의 少陰人에게만 있는 特有的 病證이며 太陽病의 誤治에서 온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明漢 ; 古方 醫學과 四象醫學에 對한

- 批判的 肯定論(三), 서울 醫林 第56號, p.13,14.
2. 洪淳用 ; 四象醫學的 批判, 서울, 醫林 第46號, pp.3 - 6.
3. 朱良春 ; 傷寒論理論의 臨床應用, 中華民國, 東洋醫學2月號, p.46,47,50,51,1987
4.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pp.16 - 23, 1964.
5. 洪淳用 \*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p.111,147, pp.156-161,166-169, 1973.
6.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崇一文化社, p.32, pp.34-46, p.201,207, 1973.
7.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p.119,120, pp.123-138, 1967.
8. 朴奭彦 ;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pp.110 - 125, 1977.
9. 張仲景 ; 新校註解傷寒論, 서울, 凡潮社, p.91, pp.254 - 303, 1962.
10. 蔡仁植 ; 傷寒論譯詮, 서울, 高文社, p.9 pp.142 - 148, 160 - 192, 1980.
11. 朴憲在 ;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 pp.123 - 155, 250 - 260.
12. 李鍾華 ; 傷寒論註釋, 서울, 癸丑文化社 pp.63 - 67, 398 - 409, 1981
13. 大塚敬節 ; 傷寒論解說,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 出版部, p.393, pp.350-392, 1975
14. 金斗明 ; 傷寒門新講義(16), 서울, 醫林 第17號, pp.45 - 48.
15. 姜孝信 ; 東洋醫學概論, 서울, 高文社, p.90, 91, 1973.
16. 余昌湖, 張瑾 ; 傷寒論의 六經病과 藥對 서울, 東洋醫學 5月號, p.68, 1986.
17. 洪淳用 ; 四象醫學의 原理, 서울, 東洋醫學 10月號, p.63, 64, 67, 1990.
18. 池圭鎔 \* 安圭錫 ;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對한 研究, 서울, 四象醫學會誌, VOL.1. NO.1. P.76, 1989.